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수철

사바나 원칙

대체적으로 남자는 왜 여자의 유방이 더 큰 쪽을 선호하는가. 얼마 전에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다. 애초에 인간 여성의 유방이 다른 영장류의 경우보다 더 발달한 것은 인류의 조상이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수컷을 유혹하던 암컷 엉덩이의 역할을 유방이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남자가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자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가슴이 작은 여자도 자기 아이가 먹을 모유는 가슴이 큰 여자들만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90년 말에 한 과학자가 풍만한 무거운 가슴이 작은 가슴에 비해 나이가 들면서 훨씬 눈에 띄게 처진다는 사실을 관찰해냈다. 작은 가슴은 나이가 들어도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작은 가슴보다는 풍만한 가슴을 가졌을 때 그 여자가 젊은지 늙었는지를 판별하기가 훨씬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자가 젊을수록 남자의 씨를 퍼트릴 수 있는 번식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자는 자연스레 가슴이 풍만한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최근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진화심리학의 '사바나 원칙'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바나 원칙에 따르면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 1만 년 전에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수렵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시기부터 진화가 멈추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을 진화가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뇌는 석기시대의 두뇌라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여전히 석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탓에, 우리는 사실상 과학적 발명품들은 물론이고 경찰이나 법정이라는 것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과 번식에 성공하여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심리적 기제를 여전히 지닌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진화심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하여 진화심리학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몰려드는 이유, 남자들이 여자들의 긴 머리카락, 금발, 가는 허리를 선호하는 이유,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얼굴에서 좌우동형의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이유, 남자들이 포르노그래피에 열중하는데 반해 여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피하는 이유, 심지어 남성 성기에서 귀두가 지금처럼 특별한 모양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명쾌하게 '진화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중년 남자들이 겪는 중년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중년의 위기는 남자들이 중년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가 중년이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아내가 폐경기에 접어들 때 남편들은 더 젊고 번식 능력이 있는 여자를 찾으려는 새로운 욕구에 빠지게 되면서 안팎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자의 두뇌는 실리콘이 들어찬 가슴이나 염색한 금발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1만 년 전의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 즉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인간 갈등의 새로운 측면들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화심리학이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짝짓기에 연결 지어 파악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차원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동안 당연하거나 자명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과감히 질문을 던짐으로써 깊이 감추어진 인간의 본성을 밝혀보는 일은 무엇보다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근래 들어 이 분야의 책들이 거의 며칠 간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진화심리학의 성실하고 부단한 '진화'에 대해 믿음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한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시민들이여, '5월정신' 벌써 잊었는가

올해로 32주기를 맞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추모 열기가 여느해 보다 썰렁하다. 기념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원 예산이 제자리인데다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와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밀려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5·18엔 해마다 5월이면 광주 금남로 일대에 그처럼 흔하게 걸려있던 '추모 플래카드' 하나 찾기 어렵다.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도 저조하다.

이틀 전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온 시민이 하나가 됐던 5·18 정신을 되새겨 순수하고 위대했던 연대와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려 달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무관심은 무엇보다 5·18기념행사위원회가 예산난에 시달리며 세부행사 일정을 뒤늦게 확정한 데 있다. 올해 책정된 32주년 행사비용 예산은 4억1100만 원으로 지난해 4억500만 원에 비해 겨우 600만 원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훈청 등 지원 기관이 대부분 예산을 동결한 때문이다.

행사위원회가 71개 세부행사를 계획했지만 일부 기획사에서 물가가 치솟은 탓에 100만~150만 원의 비용으로는 개별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행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5·18민중항쟁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인 민주·인권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색해질 정도다.

광주시와 보훈청 등은 지금이라도 추가 예산 지원에 나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도 5·18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시민들이 방관한다면 5·18의 전국화, 세계화는 요원하다. 군사독재에 목숨과 피로 맞서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주인공이 바로 광주시민이 아닌가.

때 이른 전력난 모두가 절약 생활화해야

지난해 9월 사상 초유의 정전 대란을 겪은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5월 초인데도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전력부하량은 최고 5750만kW였지만 7일에는 5900만kW로 1주일새 150만kW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도 크게 줄었다. 광주 최고기온이 26.9도를 기록한 지난 2일 전력예비율은 전날 19.7%에 비해 12.6%나 떨어진 7.1%에 불과했다. 최고기온이 연일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3일 9.3%, 7일 8.6% 등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상 10%를 넘겨야 안정권인 전력예비율이 초봄인 5월부터 10% 미만일 때가 많은 것이다. 그만큼 정전대란 우려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전력 소비자들의 의식에는 변화가 없다. 최고 섭씨 30.1도를 기록한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황금동 일대 업소 80곳 가운데 65곳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점원들은 긴소매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다. 정부의 대국민 절전 운동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예비전력이 사실상 블랙아웃 수준인 53만kW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본격 무더위가 밀려오면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폐기 예정이던 여수화력까지 가동하며 안간힘을 쏟는 이유다. 발전소 한곳이라도 고장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정전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 수요, 그 중에서도 전기냉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각 직장과 가정, 호텔 등에서 낭비가 없도록 절전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가 중장기 전력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노력만이 국가적 재앙인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기 고

부모마음 자식마음

최범채

지금은 대학생이 된 큰아이가 한창 커갈 적 이야기이다. 녀석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키가 크고, 오동통하게 젖살 뽀얗던 얼굴이 여드름 투성이의 각진 모습으로 부담스럽게 변모해갔다. 아들은 비밀이 많아진 듯했고 여자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것 같았다. 어쩌다 말이라도 붙이면 변성기로 우렁우렁해진 목소리가 한두 마디 건너오는 정도였다. 사귀는 아이들도 다양해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나의 사춘기 시절, 불안정했던 마음상태들을 가끔 떠올려보곤 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더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뿐이었다. 나 또한 병원 경영 때문에 겨를 없이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시간에 아내가 전화를 해왔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우리집에 아들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배달된 통닭 몇 마리를 해치우고도 모자라 피자까지 더 배달시키더라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서 아내는 즐겁게 응해주었단다. 그런데 배를 채운 아이들이 돌연 체력단련 한답시고 농구장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시험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 녀석,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난 두 손 두발 다 들었어요."

진료를 하던 나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솟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녀석을 그냥!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이 갔다는 농구장으로 직행했다. 유쾌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그날 내 눈에는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공부하고는 담 싼 녀석들처럼 보였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교우관계 형성에 내 아이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었다.

벤치에서 쉬고 있던 아들 친구가 나를 알아보더니 인사를 했다. 그 아이하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던 중에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오늘에서야 아들이 전교생을 평정하고 '짱'으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짱이라고! 그럼 내 아들이 일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씨근덕거리는 호흡을 가까스로 조절하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30여 분간 대화 한마디 없이 걸었다. 집에 들어온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간 사이에 아내는 아내대로 그동안 참고 숨겨왔던 온갖 불만과 비화를 터뜨렸다. 그 중에서 압권은 아들이 영어 수행평가에서 0점을 받은 사건이었다. 선생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제 주장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영어 단어를 다 외운 아들은 A4용지에 영어단어 깜지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 A4용지의 깜지도 제출하지 않았던 몇몇 친구들하고 동급의 대우를 자초한 셈이다. 감히 선생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알량한 의리를 내세웠던 아들의 모습과 학교의 짱으로 등극했다는 아들, 걷잡을 수 없이 불량 청소년이 되어 가는 자식에 대한 망상이 내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의 말씀이 왜 떠올랐는지.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해야!"

아마 언젠가 우리 형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 한 말씀 알아듣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이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나는 이미 지독한 혼란 속에서 분노의 불덩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매를 들었고 아들은 종아리를 걷었다. 분노에 치를 떠는 아버지의 매를 아들은 꿋꿋하게 견뎠다. 매를 맞는 동안 엄살 한번 떨지 않고 냉정하게 버티는 아들이 더 얄밉고 괘씸해서 매를 잡은 손아귀에 더욱더 힘이 들어갔다.

학교에서 그랬듯이 아들은 체벌을 받으면서도 선생님의 획일적인 교육 '영어 수행평가' 사건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상상했던 학교에서 짱은 일진이 아니라 아들이 맨주먹으로 교내를 평정한 '팔씨름 짱'이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날 부모입장에서 잘못된 일방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강요했던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고 오히려 부모에게 냉정하고 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춘기 아들에게 크게 사과를 했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아들이 선택한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결심했다. 결국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미국 유학을 선택했고 부모가 바라던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 건축가의 꿈을 선택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들 한다. 머리로는 골백번 맞는 말이지만 가슴은 그 간단한 이치를 접수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점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마치 정원의 꽃 같은 대상이 아닌가 싶다. 가슴으로 늘 지켜보면서, 나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존재이다. 삶의 꽃을 활짝 피워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과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나위가 있겠는가.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이 아닐까 싶다.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야!"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이, 당신 마음대로 못하셨을까?

〈시엘병원장〉

기 고

바다 식목일을 아십니까?

양금철

육상의 식목일은 애림의식 고취와 국토미화, 산지자원화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로서 1872년 미국이 주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기념일로 제정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 벌거숭이였던 민둥산을 1960~70년대 국민 모두가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주변 산들이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육상의 식목에 비해 바다의 식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조류를 바다 속에 심는 날로서 정부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올 2월 2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1년경과 후 내년 5월 10일 '제1회 바다식목일날'을 범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바닷속에서는 갯녹음(백화현상)이라 불리는 자연의 재앙이 야금야금 북상하며 연안바다의 30% 이상에서 해조류가 줄어들어 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없어지고 해조류 숲에 알을 낳고 해조 숲 속에서 살던 어류들도 달아나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조성관리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수산자원 관리공단은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설명하고 '바다 식목일'을 제안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 추진하게 됐다.

갯녹음 현상은 연안수온 상승, 환경오염, 해조류를 먹는 동물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유용해조류가 없어지고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무절산호조류가 암반에 덮여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1990년 제주도 연안부터 발생하여 급속적으로 북상, 확산돼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연안 생태계의 피해 결과 연근해 어선어업 어획량은 1990년 140만 톤에서 2011년 120만 톤으로 점차 감소됐고 수산물 수입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매년 3조 5000억원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식목으로 바다 숲이 확산되어 해조류가 번무하게 되면 자연과 우리 인간에게 보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키게 될 것이다. 우선 수산생물의 서식처가 되어 물고기가 돌아오고 산란장이 되며 해조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청정 바이오 에너지와 유용한 기능성 물질의 공급원으로 웰빙식품 등을 제공하고 바닷속과 인간의 몸을 청정하게 하여 신음하는 지구와 병들어가는 인간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여수엑스포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하게 돼 국민적 관심사로 더욱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해조류를 제공해주는 바다 숲을 만들기 위해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해안선 전역에 바다 숲 조성을 목표로 설정, 1차 10만ha, 2차 200만ha까지 확대계획을 수립해 생명의 바다·희망의 바다·미래의 바다로 만들어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날 육지의 벌거숭이 민둥산을 살리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했듯이 바다식목을 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해조류 천국이 건설되어 물 반 고기 반의 풍요로운 바다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시작한 바다식목 행사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지구를 살린다면 온 국민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격 상승을 한껏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장〉

無等鼓

토붕와해(土崩瓦解)

1529년 중종의 정국 운영이 난맥상을 빚어내자 대사간 원계채(元繼蔡) 등이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엔 "나라의 일이 토붕와해(土崩瓦解 : 흙이 붕괴되고 기와가 깨진다) 상황인데 임금이 끝내 깨닫지 못하면 큰 근심을 자초한다. 임금이 통치의 근본을 잊은 채 자질구레한 일이나 살피고, 번잡한 형식과 세세한 절목은 따지면서 큰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산만하면 법령이 해이해지고, 질서가 비속해진다. 밝은 선비가 바른 말로 진언해도 듣지 않다가 큰 일이 닥쳐서야 비로소 후회한다"고 적고 있다.

또 "즉위 초에는 정성으로 덕을 닦고 세운 뜻도 굳었지만 시간이 흘러 일마다 고식적이고, 구차한 것이 많다. 본원이 한 번 가려지면 백 가지 일이 다 그릇된다. 전하가 엄하게 다스리려 해도 요행으로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인척의 힘을 빌어 못된 짓을 한다. 간언하면 성내는 뜻을 드러내므로 진언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 이 틈을 타 인연을 맺은 무리들이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니 나라꼴이 되겠느냐"고 직언을 쏟아냈다.

서락은 한무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천하의 근심이 토붕에 있지 와해에 있지 않다고 했다. 토붕은 백성이 곤궁한데도 임금이 구휼하지 않고, 아래에서 원망이 있는데 위에서 이를 모르며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정사가 바로 서지 않아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인해 각종 측근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와 그리스·독일의 정치적 변혁으로 인한 유럽발 경제 먹구름이 짙어지는 등 국내·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집이 무너져 가는데 문패나 바꿔 다는 미봉책이나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고식지계(姑息之計)로는 상황을 돌이키기 어렵다. 나라나 조직의 리더는 이를 명심하고 살펴야만 토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